



**2021년 / 12월 1주차**

## 온다라 교양플라자 수강생 모집 안내

우리 연구원과 협약기관인 전주대학교 고전학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온다라 교양 플라자가 대면 비대면 강좌로 11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연구원 또는 전주대 온다라 지역인문학 센터(063-220-3203)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가가는 인문학, 함께하는 인문학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인문학국플러스(HK+)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

### 강의 주제는?

#### [1부] 국내 학자 초청

차시	일자	시간	주제	강사
1	11월 4일(목)	16:00	조선시대 사람들의 최애템 '담배'	장순순 (전주대학교 HK연구교수)
2	11월 11일(목)	~	항일운동을 도운 일본인 노동자, 이소가야 스에지(磯谷季次)	변은진 (전주대학교 HK교수)
3	11월 18일(목)	18:00	소설과 영화 사이, 장아이링의 「색·계」	김명희 (전주대학교 HK연구교수)
4	11월 25일(목)	(2시간)	눈이 즐거운 지역 이야기	홍성덕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2부] 국외 학자 초청

\* 국외 학자 오프라인 강의는 **이원생중개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차시	일자	시간	주제	강사
5	12월 2일(목)	16:00	황해도 연안군 지역의 농민과 저수지 이야기	홍창극 (일본 히토쓰바시대학, 日本一橋大學)
6	12월 10일(금)	18:00	일제강점기 조선교회의 자치와 자립 -최중진(崔重珍)의 자유교회와 그 주변	배귀득 (일본 리쓰메이칸대학, 日本立命館大學)
7	12월 16일(목)	10:30	구별된 사람들: 조선 사회 속의 천주교 신자 I	드버니아 토레이 (Debernire J. Torrey, University of Utah)
8	12월 23일(목)	12:30	구별된 사람들: 조선 사회 속의 천주교 신자 II	드버니아 토레이 (Debernire J. Torrey, University of Utah)

#### [랜선 체험]



with. 꿈드림원예힐링센터

**원예를 활용한 마음의 힐링 찾기**  
**스칸디아모스 원목액자 만들기**

\* 체험 관련 안내는 추후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국가비상사태 선언 - 1971년 12월 6일



1971년 4월 27일 대한민국 7대 대통령 선거가 이뤄진다. 신민당 후보였던 김대중은 예비군 폐지·노자공동위원회 구성·비정치적 남북교류·4대국 보장안 등을 선거공약으로 내 걸고, 박정희 정권의 안보논리와 경제성장론의 허구성을 정면에서 공격함으로써 대중의 선풍적 지지를 받았다. 김대중은 “박정희 정권이 종신 총통제를 획책하고 있다” 고 폭로 하며 선거에 나섰는데 박정희는 “색깔론”과 “지역감정” 으로 맞섰다. 당시 외무부 장관이었던 최규하는 “김대중 후보의 언론체육인 등의 남북교류, 4대국 안전보장, 예비군제 폐지 등의 공약을 북한이 지지했다” 라고 발표했고 국회의장 이효상은 “박 후보는 신라 임금의 자랑스런 후손이다. 그를 뽑아 이 고장 사람을 천년만년의 임금으로 모시자” 고 외쳤다.

결국 "이번이 마지막"(조선일보 방우영 사장이 조언한 읍소전략)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출마한 박정희는 이 선거에서 총투표의 51.2%(유효투표의 53.2%)를 획득, 43.6%(유효투표의 45.3%)를 얻은 김대중을 95만 표차로 따돌렸으나, 부정·불법·관권선거라는 비난을 받았다. 김대중은 전체 도시표의 51.5%, 서울에서 58%의 득표율을 보여 박정희의 39%에 비해 도시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었다. 김대중의 예언대로 이후 16년 동안 국민직접투표 없이 대통령이 선출되게 된다.

삼선 개헌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불법을 동원했음에도 근근이 당선된 박정희는 1971년 12월 6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다. 표면적 이유로는 중공의 '유엔' 가입을 비롯한 국제정세의 급변, 그 틈을 탄 북한의 남침 위협을 들었다. 박정희는 담화를 통해 "이것(민주체제)을 수호하기 위하여는 응분의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며 "필요할 때는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의 일부마저도 스스로 유보하고 이에 대처해 나가겠다는 굳은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희는 장기집권을 획책하며 초헌법적으로 선포한 "국가비상사태" 이후 1년이 채 안되어 10월 유신이라는 또 다른 초헌법적 비상조치를 마치고 1972년 12월 23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통령 선거에 단독 출마하여 2,359명 투표에 2,357명 찬성, 무효 2명으로 8대 대통령에 당선된다. 그러나 결국 박정희는 '살아서 역사의 심판을'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았고, 그의 딸인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은 참으로 정상적이지 못한 많은 일을 저지른 것이 밝혀져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감옥에 들어가 2039년 출소를 앞두고 있다.

1971년 12월 6일, 2,882일 후 부하의 총에 살해당할 이가 국가비상조치를 선포했다.